



무디스,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3단계 강등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1년 10월 4일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 조치하고, 향후 등급전망도 '부정적'이라는 의견을 제시함.

-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장기 자금조달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힘.
- 등급전망도 이탈리아와 유로존 경제상황 및 금융위험을 반영하여 '부정적'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밝힘.
- 이번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지난 9월 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&P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A+에서 A로 한 단계 강등시킨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조치임.

〈표 1〉 유럽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

구분	무디스		S&P		피치	
	등급	전망	등급	전망	등급	전망
그리스	Ca	유동적	CC	부정적	CCC	부정적
독일	Aaa	안정적	AAA	안정적	AAA	안정적
스페인	Aa2	부정적	AA	부정적	AA+	부정적
영국	Aaa	안정적	AAA	안정적	AAA	안정적
이탈리아	A2	부정적	A	부정적	AA-	안정적
포르투갈	Ba2	부정적	BBB-	부정적	BBB-	부정적
프랑스	Aaa	안정적	AAA	안정적	AAA	안정적

주: 안정적은 Stable, 부정적은 Negative, 유동적은 Developing을 의미함.
자료: 국제금융센터.

■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높은 공공부채,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성, 정치적 불확실성을 언급함.

- 무디스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위기 확산으로 전반적인 금융환경이 악화되었으며, 이러한 이유로 이탈리아와 같은 공공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장기자금 조달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등급 강등의 이유를 설명함.
- 또한,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아 경제성장률 하락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함.
- 한편,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경우 공공부채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 정치·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.

(WSJ 등, 10/5)